

<2016년 10월 2일 주일말씀>

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

본 문 야고보서 2장 26절

『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

‘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’ 입니다.

◎ 이 말씀은 ‘깨닫게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짓수’가 많아서
〈70여 개의 잠언〉으로 표현했습니다.

◎ 깨닫게 해 주려는 많은 잠언들 중에서
〈최고 핵이 되는 잠언 하나〉가 있습니다.

곧 ‘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’ 입니다.

그리고 이 잠언을 〈오늘 말씀의 주제〉로 삼았습니다.

◎ 이제 ‘핵이 되는 말씀’을 구체적으로 해 주겠습니다.

◎ 오늘은 ‘핵적인 말씀’ 을 해 주면서

왜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는지,

오늘 말씀을 왜 하는지 <핵>을 말씀하고 마칠 테니,
처음부터 집중하여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

70여 개의 잠언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 주고
확 깨닫게 해 주는 <비유의 잠언>이 있습니다.

◆ 잘 들어 봐요.

사람이 숨 쉬는 것으로 존재를 할 때까지만 (천천히 강조하면서)
육신의 삶이 존재한다.

이해했습니까?

◆ 유초등부는 100%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니,
<그 나이에 맞는 비유>를 들어서
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 -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겠습니다.

이번에는 다 이해해야, 다음 말씀을 해 줘도 깨닫게 됩니다.

◆ 잘 들어요.

입에 과자를 넣고 깨물고 씹고
과자가 입안에 존재할 때까지만 (천천히 강조하면서)
맛을 느끼고, 깨물고 씹는 기쁨을 느낀다.

이제 모두 이해했습니까?

- ◆ 그런데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
마지막으로 한 번 더 <비유>로 깨우쳐 주겠습니다.

- ◆ 가려운 곳을 손자나 아들이나 본인이 긁을 때까지만 시원하다.
이해했지요?

- ◆ 이제 모두 알아듣고 이해했으니, 일사천리로 말씀하겠습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,
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바랍니다. 알겠지요? (아멘!)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선생의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,
선생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너는 말을 잘 알아듣게 쉽게 한다.

네 큰형과 작은형은 쉬운 말도
어렵게 하니 알아듣기가 어렵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래서 대답하기를

“아는 것이 있어도 ‘표현’ 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.

또 ‘어머니에게 맞는 문법과 표현’ 을 써야 되는데,
그렇게 하지 않으니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.

예를 들어 형들은 ‘물건이 존재한다.’ 라고 말하고,

나는 ‘물건이 있다.’ 라고 말하니 내 말을 더 쉽게 알아듣지요.”

했습니다.

◆ 그랬더니 어머니는

“왜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을 쓰냐.” 하셨습니다.

◆ 왜 ‘어려운 표현’ 을 쓰겠습니까?

그래야 상대가 ‘많이 배운 사람’ 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.

◆ 그래서 어머니께

“예수님은 ‘생활 단어’ 를 많이 써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.

그것이 최고로 말을 잘한 것입니다.” 했더니,

어머니는

“네 기도는 ‘내 마음속’ 에 쪽~ 들어온다.

형들의 기도는 ‘마음 문 밖’ 에서 돌다가 끝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정말 그렇습니다.

설교를 하든지, 말을 하든지, 기도를 하든지

<상대가 알아듣기 쉬운 말>로 표현해 줘야

그 말이 ‘마음속’ 에 쪽~ 들어가게 됩니다.

◆ 요즘에 성령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,

바로 “늘 <표현>을 잘해라.” 입니다.

◆ 하나님은 ‘비유의 하나님’ 이십니다.

고로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

설교할 때 ‘생활 용어’ 를 많이 쓰십니다.

- ◆ 모두 상대를 이해시킬 때는

<자기에게 맞는 문법과 표현>을 쓰기보다

<생활 비유, 생활 용어>를 써야 ‘표현’ 을 잘하게 되어
강의도, 설교도, 대화도 잘하게 됩니다.

- ◆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평소에 수시로 교통할 때는

<자기에게 맞는 문법과 표현>을 써도

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해하시니 괜찮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

- ◎ 이제 계속해서 ‘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’ 에 대해
말씀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했으니,

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‘믿고 따를 때까지’ 만
<생명권 하나님의 품 안>에 존재합니다.

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

하다가 안 하면 ‘생명권 안의 존재’ 가 끝납니다.

계속 <생명권 하나님의 품 안>에 존재하려면,

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자기를 존재시켜야 됩니다.

- ◆ 물도 ‘끓일 때까지’ 만 물이 끓고 뜨겁습니다.

불을 끄면, 끓던 물도 멈추고 서서히 식어 갑니다.
물이 식기 전에 훌훌 마셔야 됩니다.

◆ 신앙생활을 할 때도

마치 물이 끓듯이 열을 내며 잘하던 사람이
마음이 식어서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,
더러는 반대하며 악평까지 하기도 합니다.

이런 사람들을 보면,

‘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될 수 있지?’

어떻게 저 지경까지 됐지?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.’ 합니다.

◆ 왜 그럴까요?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

아무리 열을 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
자기가 계속해서 삼위와 주를 믿고 따르며 존재해야
계속해서 <하나님과 주 품>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이것이 **절대 원리**이고, **절대 법칙**이며, **절대 순리**입니다.

◆ 만일 ‘한 번’ 손댔는데 ‘계속’ 존재한다면, 정말 큰일 납니다.

왜 그럴까요? 또 이해하기 쉽게 <비유>로 표현하겠습니다.

운전할 때까지만 차가 운행됩니다.

만일 한 번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운전했는데
그다음부터 운전을 안 해도 차가 계속 운행된다면, 사고가 납니다.

고로 **‘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’** 이
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입니다.

이해돼요? (아멘.)

- ◆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면, 한마디 더 해 주겠습니다.

사람이 밥을 먹을 때까지만 배가 불러 옵니다.

한 번 먹고 안 먹어도 계속 배가 불러 오면,
결국 배가 터져 죽게 됩니다.

고로 하나님은 ‘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도록’
세상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.

이제 모두 이해했지요?

- ◆ 그러니까... 안 하면 되는 것이 없으니 하라는 것입니다. (강조)

열심히 했어도 계속해야 존재합니다.

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계속 믿어야 존재합니다.

말씀을 듣고 삼위와 주와 대화하며 교통해도 계속해야 존재합니다.

성령을 받았어도 계속 성령과 일체 되어 살아야 존재합니다.

안 하면 되는 것이 없으니, 꼭 해야 됩니다.

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

- ◆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. 할 때까지만 된다. (강조)

고로 안 하면 되는 것이 없으니 해라.

이 말을 하려고,

하나님도, 성령님도, 주도 오늘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.

- ◆ 옷 만 벌을 방에 쌓아 놓고도 안 입으면,

평생 알몸으로 살게 됩니다.

옷이 쌓여 있어도 입어야 옷을 입고 존재합니다.

- ◆ 사람은 ‘행할 때까지’ 만 존재하니,
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.

행하지 않으면, 실 가닥만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.

- ◆ <행위>가 ‘창조’입니다.

- ◆ <휴거>도 그러합니다.

삶 속에서 <휴거>를 잊고 살면서 ‘휴거의 삶’ 을 살지 않는 자는
자기를 더 차원 높은 세계에 존재시키지 못하고,
매일 그 위치,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.

매일 행하면서 휴거를 존재시켜야
마치 살아 있는 과일나무가 크듯,
<휴거의 영>이 더 성장하고 더 빛나게 변화되어
차원 높게 존재합니다.

이런 자가 ‘매일 휴거를 존재시키는 자’ 입니다.

- ◆ <평소>에는 휴거를 잊었다가
<휴거 이야기가 나올 때>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

이런 자는 ‘**휴거에 잠자는 자**’ 입니다.

그러면 ‘**졸다가 잠결에 운전하는 자**’ 와 같아서
가다가 ‘**꽂**’ 하고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.

휴거에 졸고 살다가 순간 ‘짱’ 하면

휴거를 다치게 하거나, 휴거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.

<휴거>도 ‘존재할 때까지’ 만 존재합니다.

- ◆ <성령님>도 ‘찾을 때까지’ 만 자기에게 존재하십니다.

안 찾으시면,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.

성령님은 인생들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.

찾게 하고 부르게 하시며, ‘찾고 부르는 자’ 에게 가십니다.

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자 주도

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찾고 부르며 존재시킬 때까지만

같이 존재해 주십니다.

- ◆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까지만 가십니다.

계속해서 걷는 것으로 존재를 안 시키면,

한 발자국도 더 가지지 않습니다.

- ◆ 관리도 해 줄 때까지만 생명이 존재하고,

안 해 주면 존재가 끊어지게 됩니다.

- ◆ 자기 인생 삶도 그러합니다.

계속 행하면서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.

- ◆ 삼위도, 주도, 인생도 사랑할 때까지만 사랑이 존재합니다.

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고 따르며 주 안에 존재하는 것도

믿고 따를 때까지만 존재합니다.

- ◆ 모든 존재의 이치는 같습니다.

각종으로 존재시키려면 ‘행해야’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말씀

- ◆ 왜 오늘 말씀을 해 준다고 했지요?

할 때만 존재한다. 안 하면 존재가 끝난다. 고로 해야 된다.

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.

- ◆ <너의 육>이 <너의 영>을 위해서 행해야
<영>이 ‘휴거’ 되어 존재한다.

<육>이 계속 ‘휴거의 삶’을 살아야 된다.
그래야 ‘휴거’를 느낀다.

<육>이 ‘휴거의 삶’을 살지 않으면,
<영>이 ‘휴거’됐어도 못 느낀다.

매일 ‘휴거의 삶’을 살아야
매일 ‘휴거’를 존재시키며 느낀다.

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.

- ◆ <휴거의 삶>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
2년 동안 계속 말씀해 줬습니다.

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소홀히 하고 안 행하니,

안 하는 자만 손해 가고 아쉽습니다.

다른 것에는 그렇게도 시간을 내고 쓰면서,
〈휴거의 삶〉은 점점 신경을 안 쓰고 안 행합니다.

고로 〈휴거〉를 계속 존재시키지 못하고
〈휴거의 감〉도 떨어지고, 〈휴거의 기쁨과 가치〉도 상실하고,
〈휴거〉를 잊은 채 〈휴거〉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.

결국 ‘휴거 존재’를 했다가도 ‘휴거 상실’이 됩니다.

- ◆ 휴거뿐 아니라 〈섭리사 하나님의 뜻 안의 모든 일들〉도
할 때만 되고, 안 하면 안 됩니다.

모든 것이 자기가 실천해야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해야 됩니다.

〈행하는 자〉는 ‘생명을 존재시키는 자’입니다.

- ◆ 교역자들도, 지도자들도 ‘과거에 행한 것’이 있지만,
지금도 행하면서 존재해야 됩니다.

흔히 “나는 과거에 이랬다.” 하면서,
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‘과거 이야기’만 하며
자기를 존재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.

그렇게 하면,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.

- ◆ 현재에는 안 하면서,
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하며
현재까지 존재시키는 자는 모순입니다.

- ◆ <과거에 행한 것>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,
<현재도 행하면서 존재하는 것>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지금도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온전히 존재해야 됩니다.

지금 상태를 보고 평가합니다.

- ◆ <과거>에 ‘왕’ 살아 먹었어도
<지금> ‘무엇을 하느냐.’가 중요합니다.

지금도 행해야 됩니다!

<과거>에 주 앞에 충성자였는데,

<지금>도 그와 같이 행하며 주 앞에 충성하느냐. - 이것을 봅니다.

- ◆ 사명자들과 책임을 맡은 자들이 간판만 가지고 실제로 안 뛰면,
<존재의 잠>을 자고 있으니 깨워 줍니다.

그래도 안 하면 자격이 상실된 자이니, 옆 사람이 뛰기 바랍니다.

이런 자들은 **조는 신앙, 잠자는 신앙, 죽은 신앙**을 하고 있습니다.

- ◆ <건강>도 ‘관리할 때까지’만 건강이 존재합니다.

- ◆ <운동>도 ‘할 때까지’만 근육이 튼튼하게 존재하고,
몸매가 잘 잡혀 있습니다.

운동하다가도 힘들다고 안 하면,

그 좋은 근육도, 몸매도 모두 존재하지 못합니다.

- ◆ 섭리사 모든 지도자들이
일하다가 힘들다고 ‘건강관리 존재’를 안 시키면

균형이 깨져 땡땡이 배같이 되고,
결국 <건강>이 존재하지 못하여 ‘하늘 일’도 못 하게 됩니다.

- ◆ <신앙>도 계속해서 ‘자기 관리’를 안 하면,
땡땡이 배가 되어 신앙을 하기가 버겁게 느껴집니다.

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 오다 보면, 결국 신앙을 놓게 됩니다.

- ◆ <전도, 강의, 관리>도 ‘한 번’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.
계속 행하면서 존재시켜야 됩니다.

- ◆ 전도할 때 꼭 명심할 것은
<이단>을 전도하여 헛수고하지 말고,
전도할 때 상대를 100% 파악하고 전도해야 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이 말씀도 해 줘야 존재하기에
<잠언>만 내보내려다가 <설교>로 요리해서 전해 주었습니다.

<설교>로 존재시키니, 모두 잘 듣게 됐습니다.

하면 되니, 이같이 해야 됩니다! (아멘.)

- ◆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면서, 생활 속에서 겪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.
- ◆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<잠언>은 수요일에 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

수요일에 전해 주는 <잠언>도 잘 이해가 됩니다.

- ◆ 이제 <1시 기도 시간>까지 **2분** 남았습니다.

이제 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.

- ◆ <117기도>도, <110일 기도>도

계속 행하면서 존재시키는 자만 ‘그 차원의 것’을 받습니다.

- ◆ 직장인은 ‘그 시간’이 되면 눈을 뜨고

속으로 대화로 기도하면 됩니다.

생활 속에서 하면 됩니다.

<기도>를 못 하면 <대화>는 할 수 있습니다.

결국 <기도>가 ‘하늘과의 대화’입니다.

- ◆ 모두 각자 <생활 속>에서

신앙도, 휴거도, 삼위와 주와의 대화도, 사랑도, 믿음도

계속 멈추지 말고 행하면서 존재시키기 바랍니다.

안 하면, 되는 것이 없습니다.

안 하면, 존재하다가도 존재가 끊어집니다.

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.

생활 속에서 계속 행함으로

계속 <생명권인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품 안>에서

빛을 받으며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!

◎ 오늘 말씀 이대로 마치기 전에,

<별지>로 한 가지 귀한 것을 더 이야기해 줄까요? (청중 반응을 본다.)

그러면, 5분 안에 ‘귀한 것 하나’를 짧게 말해 주고 마치겠습니다.

<별지>

◆ 성령님은 ‘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들’이 되어 주셨습니다.

◆ 산속에 ‘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나무’가 있는데,
내가 좋아만 하지, 그 큰 산에서 캐 올 수는 없습니다.

그런데 성령님이 ‘그 나무 역할’을 해 주셨습니다.

성령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위하여 살면,
마치 ‘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나무’를 캐다가
‘내 정원’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.

성령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

‘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들’이 되어 주셨습니다.

◆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싸고 좋은 시계가 한 개밖에 없다 합시다.

<성령님>은 그 시계보다 ‘억만 배’ 더 좋게 해 주십니다.

<시계>는 ‘인간이 그때마다 할 일’을 깨우쳐 말해 주지 못합니다.

그러나 <성령님>과 일체 되어 있으면, 성령님은

‘그때마다 할 일’을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십니다.

<시계>는 ‘시간’만 보여 주지

‘만 가지, 억 가지의 일’을 못 해 줍니다.

그러나 <성령님>은 하십니다.

- ◆ 전지전능하신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
‘인간이 좋아하는 것들’ 보다
천 배, 만 배 그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.

<자기가 좋아하는 것>만 좋다 하지 말고,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늘 사랑하면서
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‘최고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’ 을
꼭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.

이렇게 사는 자가
<마음과 생각의 천국>을 만들어서 살고,
<삶의 천국>을 만들어서 실속 있게 사는 자입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